

광주신세계 '희망배달금' 전달



광주신세계(대표 이장환·오른쪽에서 세번째)는 7일 오전 서구청에서 선친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희망배달금'으로 927만2천원을 전달했다. '희망배달'은 광주신세계가 직원들과 함께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기부제도다. (광주신세계 제공)

김준원 광주은행 사무국장 우리금융인 대상



광주은행 김준원(오른쪽) 사회공헌사무국장이 최근 우리은행 본점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우리금융그룹 창립 9주년 기념식'에서 이팔성(왼쪽) 회장으로 부터 '제2회 우리금융인 대상(Great Honor부문)'을 수상했다.

순천 두산 위브 아파트, 불우이웃에 쌀·김치



순천 두산 위브 아파트(소장 김주생)는 7일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20kg 쌀 20포대와 10kg 김치 20박스를 무료급식소, 행복도시락, 다문화가정 다산청소년 등에 전달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전남과학대학 나이팅게일 선서식



전남과학대학(총장 조성수)은 7일 대학내 옥실관에서 간호과 정상은(2년)씨 등 182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했다.

교과부 선정 '한국 유학 홍보대사' 전남대 유학생 베트남 마이 씨

“제2 한류 열풍 불게 아시아유학생 연결 메신저 될 것”

“한국은 제 2의 고향인 만큼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외국 유학생들을 연결해주는 메신저(messenger)가 될 거예요. 저와 같은 홍보대사들이 활동을 잘하면 외국에서 제 2의 한류를 열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한국 유학 홍보대사'로 선정된 응원 티 타인 마이(여·23·nguyen thi thanh mai·전남대학교 경제학과 4년)씨는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만큼 배울 게 무척 많은 곳이다. 한국으로 오는 외국 유학생들이 실망하지 않게 한국 문화 알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노이 대학서 한국어 전공

베트남 하노이가 고향인 마이씨는 지난 2006년 전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으로 입학했다. 1년간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후 경제학과에 입학한 마이씨는 2008년부터 전남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이 홍보대사로 임명된 것은 그 해

가 처음. 영어는 물론 한국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을 학교에서도 인정받았다. 하노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탓에 언어 습득이 빨랐다. 게다가 영어 구사도 수준급이어서 국제 행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하노이 대학에 입학할 당시 가을동화나 겨울연가 등 드라마로 인한 한류열풍이 불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원래 언어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선택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가 좋아서 유학하게 됐죠.”

한글이 좋아 한국에 오게 됐지만 외국 생활인 만큼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조직문화가 뿌리 깊은 한국의 생활은 힘든 부분도 적지 않았다. 개인생활을 보장하는 베트남과는 달리 한국은 동아리나 학과 생활에서 개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문화의 차이인 만큼 시간이 해결해줬다. 베트남과 한국의 정서가 비슷한 부분도 한 몫 했다. 정(情)이 많은 베트남과 한국인들의 간극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베트남 친구들만 어울리는

게 아닌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서 문화의 벽은 쉽게 허물어졌다.

“많은 유학생들이 고향 친구들만 어울리다 보니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해요. 한국에 온 만큼 이곳의 문화를 빨리 적응하려면 만나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나부터 내려놔야 되요.”

“한국 문화 알리기 앞장”

마이씨는 이와 같이 활동하면서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했고 전남대 홍보대사 임명 이후 지역 대표로 '한국 유학 홍보대사'로도 선정됐다. 전국에서 25명을 뽑은 이 홍보대사는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적응을 돕게 된다.

마이씨는 “한국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다시 돌려주고 싶었다”며 “5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지식을 많이 나누며 한국의 국제 교류에 한 몫 하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신문의 날 기념대회

제54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가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사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배인준)·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근) 공동 주관으로 6일 오후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렸다고 신문협회가 밝혔다.

김재호 신문협회 회장은 대회를 통해 “뉴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혁명을 맞아 신문은 타 매체와 차별화되는 고품질 콘텐츠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며 “가치 있는 신문 콘텐츠가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배인준 편집인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한

다는 명예야말로

신문계의 공동의 화두로 행동과제 “라고 강조하며 ” 각 신문사가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야 독자와 국민 신뢰를 복원하고 새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개 단체는 우장근 기자협회 회장이 남독한 공동 선언문 “우리의 다짐”을 통해 “신문의 위기를 맞아 독자를 타하지 말고 신문이 변해야 한다”며 “신문이 정론 보도와 권력에 대한 감시 등 언론 본연의 길을 걸을 때 독자들은 다시 신문의 결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우체국 김선호씨 '집배원 대상' 금상 수상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집배원 대상' 금상에 광주우체국 김선호(40) 집배원을 선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3일 경기도 천안시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집배원 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1만7천명 집배원 중 최고의 집배원을 뽑는다.

보해 매화사진 촬영대회 대상에 권 천씨

보해양조부가 주최한 '제9회 보해 매화사진 촬영대회'에서 권천씨의 '소풍가는 날' (사진)이 대상을 차지했다. 6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해남군 보해 매실농원에서 열린 사진촬영대회 심사 결과 제8회 대회 대상 수상자인 권씨가 또다시 대상을 차지했고 금상은 백기환씨의 '영화'와 김현씨의 '해님도 찾아온 매화마을'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다. 대상에는 2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금·은·동상

무안 박희춘·보성 최영기씨 '신지식 농업인'에



박희춘씨 최영기씨

박 대표는 양파저장중 감소하는 무게 비율인 감모율을 4~6%로 낮추고 품질에 따라 엄선해 출하, 수도권에서 최고가로 거래되는 성과를 올렸다.

특작분야에서 국내 유일하게 신지식인에 선정된 최 대표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유기인증 발효차인 '황금명차'를 개발, 차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미국과 유럽, 일본의 국제유기인증 획득하여 국산차 품질의 우수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해 세계 최초로 차나무에 '금로이드 음액'을 이용해 차잎에 금미네랄이 함유된 '금복차' 개발에 성공하여 상품화함으로써 보성녹차 연관 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인사

- ◆회선진대병원
 - ▲진료처장 문재동 교수(산업의학과)
 - ▲기획실장 정 신 교수(신경외과)
 - ▲진료지원실장 김영복 부교수(위장관외과)
 - ▲교육연구실장 김영철 교수(호흡기내과)
 - ▲의료질관리실장·병리과장 이재혁 교수(병리과)
 - ▲감염관리실장 직무대리 장희창 전임강사(전남대병원 감염내과)
 - ▲기획담당 정용연 부교수(영상의학과)
 - ▲전산담당 직무대리 김주환 조교수(순환기내과)
 - ▲의공학과장 박승진 부교수(전남대병원 의공학과)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 ▲조정부·박양순씨 차남 대일군 김재홍(전남도 기업유치과장)·최인숙씨 차녀 민지양=10일(토) 오전 11시 광주 상무초컨벤션 웨딩홀(2층 자스민홀).
- ▲장원석(광주미화 대표)·최금숙씨 차남 재영군 조기영(덕촌건설 대표)·박경순씨 장녀 강옥양=11일(일) 오전 11시 30분 삼영예식장 3층(다이아몬드홀).
- ▲박동근씨 차남 지성군 김길환(전남화약 대표)·추공심씨 장녀 하나양=18일(일) 오전 11시30분 조선컨벤션 웨딩홀 3층(컨벤션홀)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기초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레파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모집

- ▲전투전법 선거마케팅 특별세미나=9일(금) 오후 1시~8시30분 광주 서구 상무지구 센트럴관광호텔 연회장(3층). 라센스터마케팅연구원 김태영 원장 등 강연. 02-766-9922.
- ▲오치 배드민턴 클럽 회원 모집=오후 7시30분~10시 30분까지 우산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 ▲문정 배드민턴 클럽 회원 모집=오후 7시30분~10시30분까지 문산초·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 ▲사(한)국어아마추어무선연맹 광주본부 아마추어무선(HAM) 입문 무료강좌=10일(토) 오후 2시 북구 신안동 730-3번지 3층. 062-512-5973.

- ▲풋볼프 회원모집 및 친선경기 주정원 선발=발로 볼을 차 흠에 넣는 풋볼프 회원 모집,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볼프장. 010-4604-4608.
- ▲진원간호전문학원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혜택·고용보험가입 근로자 혜택. 062-653-6690~1.
-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모집=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 30분~7시30분. 011-618-7882.
- ▲맘보뷰엔터 살사동호회 회원 수시모집=총장로 3가 총과 앞 더바다삼 지하, 라틴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0028.
- ▲골드윈 여성 팝스 총창단 모집=노래에 관심과 자질이 넘치는 여성으로 공연활동이 가능한 분. 문화예술연대 '누림' 011-638-0141.
-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 수시 모집=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

촬영역, 규방공예 등, 쌍촌동 원음방송국, 062-232-7223~4

- ▲광주 두암 대건도 체육관 여성 요가 모집=요가를 배우고 싶으신 분 모집. 관장 박성택. 010-3636-1758.
-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이빌관. 062-524-0680.
- ▲어린이 건강교실(기린지 천식, 비만, 아토피, 어린이 질병)=매일 오후 4시~6시. 북성동 연아빌딩장 건물 1층. 062-651-1175~6.
- ▲'마늘 죽염 건강요법' 주민건강교실=매월 둘째주 금요일 저녁 7시. 남구 북성동 연아빌딩장 1층~6. 산죽염광주지사. 062-651-1175~6.
- ▲아름다운경매 동호회 모집=기초부터 학습, 물권, 채권, 권리분석, 점유권, 법정지상권, 공동분서, 현장답사 직장인 스테디를 통한 체계적교육. 011-607-4614.

부음

- ▲김철수씨 별세 재경·재현·정자·은화·부자씨 부친상=발인 9일

(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 ▲김희태씨 별세 훈근·인근·백근·필균씨 부친상=발인 9일(금)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 ▲김현규씨 별세 석신·정환·영화·명일·명숙·명린씨 부친상=발인 8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 ▲정만신씨 별세 형운·성윤씨 부친상=발인 8일(목)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마음까지 편안함 - 금호장례식장 ☎ 227-4000

故 김승덕 (여: 78세)
주/부/모 박순순/박순애/박순영/박순주

호실	공실 101호
발인	04월 08일
장지	연락장

故 조현덕 (여: 86세)
주/부/모 이명석/양덕경/기억/김정희/유재/이복순/김현승

호실	공실 402호
발인	04월 08일
장지	연락장

심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주자랑 - 정갑현 올림!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자랑합니다.

가임문의 1688-3740

안대종합상조 권국영 대표